귀신 편들기가 성령훼방 죄

(마태복음 12:22~37)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귀신 편들기가 성령훼방 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귀신 편들기가 성령훼방 죄'
오늘 말씀에는 다룰 수 있는 여러 주제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훼방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귀신을 편들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성령을 편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귀신을 편드는 것이고 성령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공동묘지에 거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광인은 광포하여 쇠사슬로 묶어도 끊었기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귀신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우리는 머리 풀어헤치고 옷을 벗고 깔깔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부차적이고 의례적인 사역일 뿐입니다. 귀신의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물론 이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써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 즉 천국이란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로 말

미암아 하나님을 지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수직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무한한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배우자가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아닙니다. 또 거울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몸이 나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대상이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거역하고 훼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훼방 죄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을 담았다면 실제로 돈을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형통을 바라게 되고,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자리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가치들의 이름을 마음에 담을 때에 그것들을 실제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는 동안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지언정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에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인격적이듯이 귀신들림 또한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증세로는 귀신들린 것을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의 이름을 담게 되는 것으로써 귀신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본문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봄으로써 성령의 여덟 가지 열매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입의 문제가 아닌 듣지 못한다는 청각 장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3절을 보면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24절을 보면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것이라고 비난한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훼방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보다 근본적인 죄의 기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하게 되는 마음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맥락이 존재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안식일 논쟁 바로 뒤로 가져옵니다.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귀신들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안식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을 벌인 상대는 모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와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르며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 보았던 안식이란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지나친 삶을 중단하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주는 효과는 마음이 등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거꾸로 살펴보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던 이유는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식할 수 있다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언급하며 논쟁을 유발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안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보고 듣기에 말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인격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붙들 수 있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가장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이유는 실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킨답시고 행동을 했지만 결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귀신의 사역에 동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담은 자가 수중에 돈을 넣고 싶어 하고, 건강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담은 자가 실제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애인을 떠올리면 애인을 보고 싶어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허락해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계시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귀신들려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귀신은 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귀신이 들어있고 나의 느낌 속에 또한 귀신이 들어있으며 내가 하는 말 속에 귀신의 역사가 들어있게 됩니다.

풍랑 만난 배에서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크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나쳐서 몸으로 만나는 풍랑이라는 상황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몸으로 만나는 풍랑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크게 보자 풍랑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인으로 당연한 일이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망상이고 착각이고 오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보셨기에 그 풍랑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풍랑은 얼마든지 깊은 잠을 잘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풍랑이 가진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분으로 볼 수 없다면 제자들처럼 망상을 하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라는 풍랑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분으로 볼 때에는 돈 문제는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는 풍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나쳐서 돈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돈 문제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풍랑이 됩니다. 공포가 생기고 망하게 되리라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보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분으로 볼 때에만 배우자의 진짜 모습과 대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지나친다면 배우자에 대해 가지게 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좋아도 착각이고 망상이며 싫어도 착각이고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안식과 반대된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식과 가장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식에서 가장 멀리 있으면서도 안식으로 돌아오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또한 착각이고 망상이고 오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분으로 볼 수 없는 상태는 근본적으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거짓이기에 그가 하는 말도 다 거짓이며 오류투성이고 망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없는 정치인이 나라를 걱정해서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망상이고 하는 일은 오류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에 때로는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뿐이지 망상과 오류로 점철된 일들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진실이라고 느낄지라도 실은 그 상태는 귀신들린 상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가장 보편적인 사역이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안식일 논쟁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보태며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본문 33~35절에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역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분으로 보이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인격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보는 대상이 내 인격의 나무가 됩니다. 돈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크게 보았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는 돈과 관계된 탐욕의 열매들만 맺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분으로 보이게 하시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격에서는 성령의 여덟 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고 계시기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자면 성령을 훼방하는 죄란 곧 성령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언행과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안식일 논쟁과 연결시키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보고 들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분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은 돈과 명예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라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라고 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돈과 존경과 특권의식에 대한 선호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열망하고 인기를 열망하고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 존경받기를 열망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은 현장에서 당황하고 놀라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령을 훼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말이었을 뿐입니다. 결코 자신들이 몰리고 불리해질까 우려하던 가운데 우연히 성령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기적을 보았을 때에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그토록 안식일의 규정을 외쳤으나 안식의 본래 의미인 하나님을 그리워하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이들은 오직 삶에서 이룰 성취를 그리워하였고 하나님을 그리워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성령을 훼방하는 죄입니다. 이 세상의 비전과 꿈같은 것들을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전과 꿈이 성령의 사역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을 위해 철야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훼방 죄임을 기억하시

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야 말로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돈을 담으면 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싶기에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령훼방 죄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사역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귀신의 사역에 동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죄는 용서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는 돈 문제, 자녀 문제, 취직 문제 같은 세상의 문제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큰 분으로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죄의 짐은 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성령님의 사역의 빗장이 풀려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